대 외 비

1992. 12. 31. 까지

관리번호

40

남북대화관련 쌍방서신 및 직통전화통지문

〈1988.1~1988.12〉

1989. 2

88/11

국 토 통 일 원

남 북 대 화 사 무 국

목 차

Ⅰ. 남북대화 관련 쌍방서신 ····· 3

1.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 7

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 24

가. 남북고위당국자회담 ····· 24

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및 3자회담 ····· 26

다.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 37

3. 남북연석회의 ····· 41

4. 남북학생교류 ····· 52

가. 남북교육당국회담 ····· 52

나.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남북학생회담 ····· 55

5. 남북체육회담 ····· 59

Ⅱ. 남북직통전화 통지문 ····· 63

1.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 67

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 97

가. 남북고위당국자회담 ····· 97

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및 3자회담 ····· 101

다.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 106

3. 남북연석회의 ····· 108

4. 남북학생교류 ····· 113

가. 「6·10」·「8·15」 남북학생회담 ····· 113

나. 남북교육당국회담 ····· 119

다.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남북학생회담 ····· 123

5. 남북적십자회담 ····· 125

6. 남북체육회담 ····· 133

Ⅰ. 남북대화 관련 쌍방서신

쌍 방 서 신 통 계

구 분	국회회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남 북 연석회의	남북학생교류		체육회담	계
		고위당국자회 담	고위급정치군사및3자회담	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남북교육당국회담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남북학생회담		
남	3	1		1		1		1	7
북	3		2		2		1	1	9
계	6	1 (방송공개)	2	1	2	1 (방송공개)	1	2	16 (방송공개 2건포함)

1.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가. 대한민국 국회의장, 북한의 서울올림픽대회 참가촉구 결의문 관련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 양 형 섭 귀하

대한민국 국회는 1988년 7월 9일 제142회 임시국회 제20차 본회의에서 1988년 9월17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단이 참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읍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이 결의문을 별첨하여 귀하에게 보내는 바입니다.

1988년 7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촉구결의문

대한민국 국회는 전인류의 축제인 제24회 올림픽대회가 161개 국가의 열렬한 지지와 적극적 참가리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와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정착을 갈구하고 희망하는 세계각국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 역사적 대제전을 민족적 화해와 교류의 일대 계기로 삼아 최대로 활용하면 민족적

숙원인 통일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선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서울올림픽대회를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측의 성의와 호의적 참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대한민국 국회는 1988년 9월17일 개최되는 역사적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것을 희망하면서, 북한당국은 숭고한 올림픽정신과 취지에 입각하여 또 나아가 민족적 대화해의 기폭제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 자세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당국이 온 세계가 남북한의 태도와 관계를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서울올림픽대회가 한민족의 동질성과 우수성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행사로 승화되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선수들과 동포들이 서울올림픽대회기간을 중심으로 상당기간동안 남북간을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남한의 어디든지 방문할 수 있는 보장하에 분단의 장벽을 헐어버리는 기회로 이용해 줄 것을 희망한다.

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한이 서울올림픽대회를 시발로 계속하여 각계각층 그리고 각분야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겨레의 궁극적 소원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간 긍정적이고 진향적 자세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진지하게 제의한다.

1988년 7월 9일

대 한 민 국 국 회

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연석회의 관련 1차 대남편지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와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귀하에게 보내면서 이에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 장 양 형 섭
1988년 7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북과 남은 머지않아 조선정전이 실현된지 서른다섯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전이 되던 그때 우리 겨레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이처럼 오랜 세월 지속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결과 긴장이 끝없이 격화되어온 지난 35년동안 어느 한시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보지 못하였으며 어느 한때도 진정한 평화를 누려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사이 온 강토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을 일촉즉발의 긴박한 사태가 조성된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으며 온 민족을 멸살시

킬 핵전쟁위험이 밀려온 때도 한두차례가 아니였습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대결과 분쟁이 가셔지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져도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한번 대결이 멎은적이 없고 긴장이 해소된 적이 없으며 화합과 단합이 실현된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쟁때이상의 재부를 서로 대결에 소모하며 너무도 오랜 세월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대결을 가시기 위한 발기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적었던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완화와 평화우에 오늘 더해가고 있는 것은 대결과 긴장이며 쌓이는 것은 전쟁, 핵전쟁위험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동서해에 떠도는 항공모함전단이 무엇에 소용되고 곳곳에 산적되여 있는 핵무기가 무엇에 필요하며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연습이 무엇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결과 전쟁은 남에도 북에도 리로울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올림픽경기에도 좋을것이 없고 세계청년학생축전에도 해가 될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전쟁을 막아야 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을 전쟁의 위험에서 오늘 벗어나지 않으면 핵참화가 휩쓴 래일에는 후회도 할 수 없고 평화도 볼 수 없으며 통일이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류도 좋고 교역도 필요하지만 보다 긴급한 것은 긴장의 완화이고 대결의 해소이며 전쟁의 방지입니다.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칼을 떠리며 대포질을 하는 오늘의 대결

상태를 그대로 두고 말로나 비방중상을 그만둔다고 하여 불신이 가셔질 것도 없고 신뢰가 회복될 것도 없습니다.

더우기 속에 칼을 품고 원쑤처럼 지내고 있는 북남사이의 근본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서로 교류와 교역도 할 수 없고 화합과 단합도 이룰수 없으며 협력관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온 겨레는 한시바삐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지내며 통일된 조국에서 살것을 바라는데 완화와 화해의 빠른길을 택하지 않고 교류나 교역으로 한정없이 세월이나 끌자고 해서야 언제 겨레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통일의 기쁨을 가져다주겠습니까.

칼을 버리고 대포질을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교류나 교역을 하여도 북과 남은 여전히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남처럼 살게 될뿐 언제 가도 화목한 민족공동체로 될 수 없습니다.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야말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민족앞에 지닌 책임을 통감하고 한자리에 마주앉아 완화와 평화를 위한 방도를 함께 모색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미 내놓은 북남련석회의제안에는 온 민족의 의사를 모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절절한 념원이 반영되여 있습니다.

우리는 북남련석회의가 완화와 평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협상마당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이 회합이 소집되기

전이라도 북남사이에 불가침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회담으로서 이미 우리측에서 제의한바 있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토의할것을 예견한 북남국회회담이 가장 적절한 회담으로 된다고 봅니다.

북남국회회담에 대해 말한다면 북과 남은 1985년 6월에 국회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두차례의 예비접촉을 가지였으나 중도에 예비접촉자체가 결렬되여 본회담까지 들어가지 못한바 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무엇보다도 이 회담을 열것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회담의 개최야말로 현시기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하여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민족앞에 지닌 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대사입니다.

더우기 귀측에서 올해에 국회가 새로 선거되고 그 구성이 달라졌으며 우리도 그 사이에 최고인민회의가 새로 구성된 사실은 쌍방이 국회회담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조건과 가능성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북남국회회담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새 국회들이 새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예비접촉을 거침이 없이 직접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귀 국회의원들의 련석회의를 가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련석회의는 긴장완화문제를 토의하는 우리 최고인민회의에 귀측 국회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참가하고 역시 같은 문제를 토의하는 귀 국회에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참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국회련석회의를 가지는데는 어려울것도 없고 복잡할것도 없습니다.

국회련석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토의하며 그리고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유익한 것이라면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침문제의 토의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의 기초로 될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이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국회련석회의에서 토의하려는 문제의 중대성으로 보아 이 회의에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도 참가하면 더 좋을것이라고 봅니다.

국회련석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되 그 운영방식은 쌍방 국회의장들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회의를 평양에서 할 때는 우리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사회를 맡고 서울에서 할 때는 귀 국회의장이 사회를 맡는 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회의에서의 토론은 상정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진행하며 의결방법은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수가 더 많더라도 공명정대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측 대의원 수를 귀측 의원수에 대등하게 하고 투표와 거수의 방법을 배합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쌍방 국회의원들이 호상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국회의원의 일반적 특전을 부여받도록 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제1차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오는 8월안으로 평양에서 가질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남국회련석회의가 소집되여 불가침문제를 비롯한 완화와 평화를 위해

나서는 제반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국회련석회의의 소집은 의심할 바 없이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사이의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의 길을 열어놓게 될 것이며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을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오고가면서 련석회의를 하게되면 정치인들의 교류도 저절로 실현되고 각계인사들의 래왕도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며 북과 남의 협력과 교역의 길도 트이게 될것입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수백수천명씩 한자리에 모여 회합을 가지며 복잡한 국제문제들을 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의 핏줄을 잇고 같은 말을 하는 동포들끼리 아무리 많이 모인들 민족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리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주앉아야 합니다. 마주앉으면 긴장도 해소할 수 있고 신뢰와 화해도 도모할 수 있으며 평화통일의 넓은 문도 열 수 있습니다.

남조선국회의원들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완화와 평화와 통일을 기약하여주는 북남국회련석회의 마당에 흔연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 국회가 애국충정에 넘치고 통일구국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북남국회련석회의제의를 신중히 대하고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 설 회 의

1988년 7 월 20 일

평 양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초 안)

북남국회련석회의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당국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북과 남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3.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이나 무장간섭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며 그것을 협조하지 않는다.

4.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5. 북과 남은 서로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하며 그에 병행하여 조선반도의 지역안에 주둔해있는 외국군대와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6. 북과 남은 현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하고 완충지대안에서 무

장충돌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그 담보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중립국감시군을 두도록 한다.

7. 북남불가침선언은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 협정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다.

북남국회련석회의는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할것을 쌍방당국에 위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는 북남국회련석회의에서 발표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북남국회련석회의

1988년 월 일

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연석회의 관련 2차 대남 편지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귀하가 7월 18일에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편지에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조선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적화해》의 《일대계기》로, 《분단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민족적숙원인 통일》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할데 대한 귀 국회의 립장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한 귀 국회의 립장에 류의하였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문제를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리롭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축제를 치루자면 응당히 나라의 분렬이 아니라 통일에 도움이 되고 동족사이의 대결이 아니라 단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동으로 주최할것을 거듭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반면에 귀측은 화해와 단합과 통일에 도움을 줄 올림픽공동주최안을 반대하고 나라의 반쪽땅에서 절반짜리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국회가 이번에 늦게나마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일대 계기로 리용하자고 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귀측이 주장하는 올림픽참가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지금 일정에 올라있는 북남국회련석회의를 늦어도 올림픽경기가 시작되기전인 8월안으로 소집하고 여기에서 귀측이 우리를 초청한 문제와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을 동시에 긴급의제로 토의할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이 사심없는 제의는 어떻게하나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성실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북남국회련석회의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와 함께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문제를 성과적으로 토의하게 되면 평화적 통일의

기본전제의 하나로 되는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당면문제를 쌍방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취지로부터 귀하가 북남국회련석회의에서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와 함께 제 24차 올림픽경기대회문제를 토의할데 대한 우리의 또하나의 합리적인 제의에 긍정적인 대답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1988년 7월 26일

라. 대한민국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관련 1차 대북서한

본인은 북한선수들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촉구한 7월 18일자 본인의 서한 및 이에 대한 귀하의 7월 26일자 서한과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7월 20일자 귀하의 서한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제의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귀하로부터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인은 귀하가 7월 20일자 서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을 8월중에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접촉을 위하여 15명의 우리측 국회의원들을 8월 둘째 주 중 귀측이 원하는 일시에 판문점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안에 귀측이 원하는 일시를 알려주기 바라며 아울러 귀측도 같은 수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그 일시에 판문점으로 보내

주기 바랍니다.

1988년 8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연석회의 관련 3차 대남편지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귀하의 8월1일부 회답편지를 받았습니다.

귀하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귀측에 지난 7월20일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기 위한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편지를 보낸데 이어 7월26일에는 국회련석회의에서 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귀측이 우리를 초청한 문제와 우리측의 공동주최 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할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보낸바 있습니다.

우리측의 이 거듭되는 제의에 대하여 귀측이 이번 회답편지에서 비록 제한성이 있기는 하지만 리해를 표시하고 쌍방 국회들사이에 회담을 가지자고 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측의 회답편지에 리해할 수 없는 막연한 문제들이 적지않은 사실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귀측이 회답편지에서 언급한 《남북국회회담》이라는 것이 국회련석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대표회담을 하자는것인지 그리고 다른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을 회의에 참가시키자는 것인지 아니면 배제하자는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귀측이 말하는 《남북국회회담》이 제한된 몇사람의 대표회담을 념두에 둔것이며 다른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도 배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현실에 부합되는 적중한 회담방식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귀측이 회담편지에서 제기한 《준비접촉》에 대해 말한다하여도 긴급의 제로 협의해야 할 올림픽문제가 40여일앞으로 개막이 다가온 현실은 예비접촉을 따로 가지고 다음에 본회담을 여는식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준비접촉》이라고 하면서 일반회담의 규모보다도 더 큰 30명 범위의 쌍방 접촉을 가지자고 하는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귀측이 언급이 없는 사실로 보아 우리측이 두차례의 편지에서 제기한 의제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이 없는것으로 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귀측의 회답편지에는 여러모로 성근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시야비야하면서 시간을 끌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시바삐 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하려는 일념으로부터 귀측이 북남국회들사이에 회담을 가지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실에 류의하고 귀측과의 련석회의준비를 위한 상봉에 나가려고 합니다.

국회련석회의준비를 위한 상봉은 오는 8월17일 오전10시 판문점 우리측 《통일각》에서 각각 3～5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가지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에서 북남국회련석회의 제1차회의를 평양 또는 서울에서 8월26일부터 개최할데 대한 문제와 이와 관련한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할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우리로서는 국회련석회의소집과 관련한 실무절차를 협의하는데는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이 협의할 실무절차라고 해야 장소, 시일, 판문점통과절차, 신변안전, 편의보장 문제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장소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귀측이 당장 서울에서 제1차 북남국회련석회의를 하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먼저 준비가 되어있는 평양에서 하면 될것입니다.

시일문제는 이미 쌍방사이에 8월안으로 하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으므로 8월26일로 정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며 회의기간은 4박5일정도로 잡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통과절차는 지난 북남대화의 관례에 따르되 서로 국회의원들과 다른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제출하고 각자가 신분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를 지참하고 판문점을 통과하면 될것입니다.

평양과 서울을 래왕하는 인원들의 신변안전은 사전에 쌍방 해당 기관들이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그 성명문본을 상대측에 넘겨주는 방법으로 담보하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련석회의에 참가하는 인원들의 숙식과 교통, 통신 등 제반 편의는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의 신분에 맞게 회의주최측이 책임지고 보장하면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실무절차문제를 토의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한번의 상봉으로도 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올해는 우리 공화국북반부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고 남조선에서 국회가 구성된때로부터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하고 불가침문제와 올림픽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과 통일념원에 맞게 해결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귀국회가 우리의 제의에 신중한 주의를 돌리고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줄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1988년 8월 9일

바. 대한민국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관련 2차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본인은 8월1일자 본인의 서한에 대한 귀하의 8월9일자 회답서한을 받았읍니다.

본인은 남북국회회담을 여는데 있어서 쌍방간에 몇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남북국회간에 회담을 가지는데 서로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북국회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회담의 성격상 우리측 국회의원과 귀측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간에 국회회담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에따라 우리는 남북국회회담의 준비를 위한 남북국회의원들간의 접촉을 8월19일 오전11시(표준시 오전10시) 판문점 귀측지역의 통일각

회의실에서 갖기를 희망하며 5명의 우리측 국회의원들을 보낼 것입니다.

이 접촉에서는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를 포함하여 회담의 형태, 대표단 구성, 회담일시 및 장소 그리고 기타 실무절차 문제를 협의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1988년 8월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대북서한

* 1988.6.3, 방송공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 총리 이 근 모 귀하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지 반세기가 가까이 다가오도록 아직도 분단의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해야 하는 민족사적 과제가 주어지고 있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기간동안 우리 겨레는 남북으로 단절되어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된 통한의 시대를 살아왔으며, 이러한 분단역사는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오점을 남겼읍니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불행한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통일된 민족으로서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노력을 더이상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여러차례에 걸쳐 여러형태의 대화를 가져왔고 또 부분적인 결실도 없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읍니다.

나는 그 이유가 남과 북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고 하나의 뿌리를 지닌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확고히 발전시키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쌓인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

다. 상호신뢰가 증진되어 가면 남북간의 긴장이 자연히 해소되고 민족적 유대가 회복될 것이며 평화통일의 길도 가까워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땅에서 열리게 되는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지금 우리 겨레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이 대회가 동서화해의 장은 물론 남북간 화합의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외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민족적 경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을 조속히 제거하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개최를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남북고위당국자회담에서는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의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등의 인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온 민족의 기대 속에 추진되었던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 기존대화의 재개를 주선하는 문제, 그밖에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북이 서로가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만 선다면 이같은 문제들은 아무런 어려움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로 향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 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가능한 한 금년 6월중 서울 또는 평양에서 첫 회담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족내부의 이러한 비극적이며 비정상적인 사태를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의 근원은 물론 외세에 있지만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여하에 달려 있으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전망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시점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로부터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 결정에 따라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할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열것을 귀당국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대표단은 각각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고 군총참모장급을 부단장으로 하여 7～9명정도의 실권있는 고위급정치군사대표들로 구성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문제의 절박성에 비추어 우리는 첫 회담을 오는 12월 중순경에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가질것을 희망합니다.

회담에서는 우리가 포괄적인 평화방안에서 내놓은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방안이 토의되여야 할 것이며 이밖에도 정세완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문제들도 폭넓게 협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기하고 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다시금 제의하는것은 오늘의 변천된 정세를 고려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데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우리의 제의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국회회담을 진척시키고 여러갈래의 대화들을 계속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게 될것이며 그것은 특히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는데 훌륭한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첫 돌파구를 마련하리라고 확신하면서 귀측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을것을 기대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리 근 모

1988년 11월 16일

평 양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

1.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1) 미군무력의 단계적인 철수

①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

②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의 부산, 진해 계선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 공군의 전체를 철수한다.

③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미국은 남조선에서 철수하게 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2)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① 북과 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력의 축감은 군사분계선 전연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대, 륙전대 병력부터 먼저 하는 원칙에서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북과 남의 병력수는 각각 1989년말까지 40만명, 1990년말까지 25만명수준으로 축감하여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한다.

②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감은 단계별 병력축감에 맞게 하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히 폐기한다.

무력의 축감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직을 해체한다.

(3)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① 미군무력의 철수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측에 통지하고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에 대하여 북과 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며 호상 통지한 내용을 공개한다.

②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의 철수정형과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4)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여야 한다.

①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한다.

3자 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 북남사이의 쌍무회담도 할 수 있다.

② 3자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검증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킨다.

③ 3자회담에서는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평화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

2.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1)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삐라살포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연방송을 중지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를 중지한다.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법규들을 철폐한다.

③ 북과 남은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정당, 단체와 개별인사들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사래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리용하며 상품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공동협력을 실현한다.

(2)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쌍방 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조직된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련합부대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④ 북과 남은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 고위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3) 북남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는 실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위급 정치군사대표가 참가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고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담을 따로 할 수 있다.

(2) 북한 정무원총리, 3자회담 관련 대남편지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위임에 의하여 귀하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 11월 7일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귀측 당국과 미국정부에 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련합회의에서 확정된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은 이미 귀측에 11월 16일부 편지에 동봉하여 전한바 있습니다.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는 북과 남에 있는 모든 현존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감하며 북과 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대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는 오늘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 정치군사적대결이 격화되고있는것은 북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때문도 아니고 북과 남에 대한 그 누구의 《승인》이나 그 어떤 국제적인 《인정》이 없기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군비경쟁, 무력증강이 계속되는속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팽팽하게 대치되여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우리 민족이 언제가도 전쟁위험, 핵전쟁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북과 남이 민족적으로 화해하고 단합할 수 없게 될것입니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오늘의 상태가 더이상 지속되는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더우기 오늘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분쟁문제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여가고있는 때 우리 나라에서만 전쟁위험이 더욱 더 첨예해지고 동족사이에 반목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평화에 대한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완화를 지향하는 현정세의 추이에 부합되게 조선반도에서 완화와 공고한 평화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군축과 평화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것과 같은 근본문제들은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마주앉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미 1984년 1월에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조미사이에 조선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앉아

함께 방도를 모색해나가야 할때라고 인정합니다.

이로부터 나는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과는 별도로 북과 남,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시급히 가질것을 귀당국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3자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이 토의되어야 할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위하여 절실한 3자회담을 될수록 빨리 마련하기 위하여 각기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3자실무대표접촉을 12월중에 스위스의 제네바나 그밖의 제3국에서 가질것을 희망합니다.

3자회담이 실현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방대한 군사무력이 축소되고 조미간의 평화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이 채택되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의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될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귀측 고위당국자도 여러 기회에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협상할 의사를 표시해 나온것만큼 우리의 이 제의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운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을것을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1988년 12월 20일

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관련 1차 대북 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귀하

조국이 분단된지 43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우리 겨레가 분단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사상과 제도가 다른 민족들 간에도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방과 교류를 통해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반목과 대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산가족들 사이에 안부편지 한장 교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현실을 과감히 뛰어넘어 해묵은 대립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귀하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측은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간 인적·물적교류를 위한 문호개방, 대북 비방방송 중지,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대결 지양 등 우리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화해와 협력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겨레의 자존과 역량을 바탕으로 민족적 화해와 번영, 통일을 앞당기려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귀측이 이에 상응한

자세를 보여올 경우 우리측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읍니다.

남북대결과 갈등의 근본원인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오랜 단절을 통해 불신이 쌓여온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측도 지적했듯이 불신과 오해가 남아있는 한 아무리 대화를 하여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길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남북간에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불간섭의 기초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남과 북은 인도,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군사 등 제 분야에서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당면 실천조치들을 취해 나감으로써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귀측의 지난 11월 16일자와 12월20일자 편지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귀측도 지적한 바와같이 평화와 화해의 질서로 급속히 재편되는 주변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자존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에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그 주체도 당연히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우리측은 남북 당사자간의 해결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기대와 여망에도 부응하는 길이

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귀측의 제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민족통일의 새 지평을 내다보면서 남북간에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해 남북고위당국자간에 회담을 열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은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각기 7명의 대표로 구성하며 상호 비방·중상 중지문제, 상호존중 및 불간섭 문제,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을 의제로 하여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북간 고위당국자회담이 개최되면 남북사이에 당면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 귀측이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여타 방안들도 함께 토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 개최와 관련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예비회담을 내년 2월 초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아울러 제의하는 바입니다.

예비회담의 수석대표는 차관급(부부장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과 함께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이 곧바로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늦어도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내년 2월 하순에,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내년 3월 하순에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신뢰회복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이산가족을 비롯한 각계인사가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고 경제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민족적 여망이며 시대적 요청이기

도 합니다.

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이 열리고 각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가 실현되면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귀하의 긍정적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8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3. 남북연석회의

가. 북한, 남북연석회의 제의 관련 1차 대남편지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각 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에서 채택된 귀측 당국과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동봉하여 보내오니 당사자들에게 정히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1월 14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 정 렬 귀하

1월 13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 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에서는 귀측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습니다.

나는 위임에 의하여 이 편지를 귀하에게 보내면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바입니다.

북남련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 허 담
1988년 1월 14일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들!

오늘 우리들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려는 념원을 안고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를 가지였다.

련합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치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우리는 북과 남의 정계, 사회계 대표들이 조속히 한자리에 모여 앉아 올해에 기어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려는 본 련합회의의 결의를 반영하여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북과 남은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의연히 한걸음도 내디디지 못한채 또 한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였다.

민족분렬의 력사에 벌써 마흔세번째의 년륜이 새겨지는 비극적인 현실은 모든 조선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으며 해가 더해갈수록 격화되여가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는 누구에게나 민족의 장래와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

지금 온 겨레의 관심은 극도로 첨예화된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민족내부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 돌려지고있다.

정전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동족끼리 총까지 겨누며 맞서있는 우리 나라에서 오늘과 같은 첨예한 대결이 지속될 때 어떤 결과를 빚어내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새해에 들어선 조선반도정세를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최악의 사태는 남조선내부의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의하여 빚어질수도 있고 현 북남사이의 대결이 그 불씨로 될 수도 있다.

과연 이것이 북과 남의 어느쪽에 리익으로 되며 우리 민족의 누구에게 리롭겠는가.

승자도 패자도 없을 이 대결과 전쟁에서 참화를 당할것은 우리 민족뿐이며 덕을 보고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세뿐이다.

민족의 운명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들이 더 무엇을 기다리며 주저할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의 모든 인사들이 각성하고 또 각성하여 이 땅우에 무겁게 드리운 전쟁의 검은 구름을 가시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구국성업에 나서야 할 때이라고 인정한다.

비록 북과 남은 사상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도 동족끼리 서로 원쑤가 되여 싸우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 그것으로 하여 민족이 핵전쟁의 참화를 겪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당장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같은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롭게 살아갈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념원으로부터 이미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국회회담방안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일련의 평화제안들을 내놓은바 있다.

우리의 제안들이 실현되면 나라의 평화는 공고히 담보될것이며 평화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 평화발기들이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형편에서

올해에 최소한 북남사이에 당면하게 걸려있는 몇가지 시급한 문제만이라도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시급한 문제로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올림픽공동주최와 비방중상중지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고 보고있다.

만일 북과 남이 이 최소한의 문제마저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평화와 잇닿아있는 민족화해의 길로 나가야 하며 평화통일과 이어져있는 민족단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일은 제한된 몇사람이나 특정인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광범한 의사가 모아지고 힘이 합쳐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는 정견과 신앙을 달리하는 정당, 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이 민족내부의 반목과 대결을 반대하며 통일위업에 거족적으로 참여할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북에도 리롭고 남에도 리로우며 민족을 위해서도 좋은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좁게 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각계각층이 광범히 참가할 수 있는 넓은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북과 남 쌍방의 당국자를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당신들에게 정중히 제의한다.

북남련석회의에서는 올해안으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다국적군축회담을 마련하는 문제, 제정된 올림픽참가신청기일에 관계없이 북남공동주최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여야 할것이다.

이밖에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해로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다른 문제들도 토의할수 있을것이다.

련석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하며 날자는 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남련석회의의 조속한 소집을 위하여 오는 2월 19일 판문점에서 예비회의를 가지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예비회의에는 북과 남에서 각각 당국과 정당, 단체의 위임을 받은 5~7명의 대표를 참가시키되 당국대표는 부장급, 정당, 단체 대표는 부책임자급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의 피줄과 유구한 력사와 문화는 과거에만 있었던것이 아니라 오늘도 존재하고 래일에도 살아있을것이다.

누구나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립장에 서고 진실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롭게 살려는 뜻을 가진다면 민족앞에 나선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건설적인 제의에 호응하지 못할 리유란 없을것이다.

우리는 북남련석회의가 열리게 되면 올해안으로 반드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력사의 장이 펼쳐지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들이 우리의 제의를 신중히 대하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 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

1988년 1월 13일 평 양

※ 북측은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괄호안의 인사들에게 보내왔음

(민주정의당 총재 노태우,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한국국민당 총재 이만섭, 신한민주당 총재권한대행 신도환, 민주한국당 총재 유치송, 사회민주당 위원장 권두영, 윤보선 전대통령, 최규하 전대통령,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계훈제·고은·김승훈·박형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인,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김정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김희택, 민주쟁취노동자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유동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사회운동대표 이철·유인태,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이우정,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위원장 이총각,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문익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문인구,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박일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박태원, 한국인권옹호협회 회장 박한상, 백기완선생, 민주교육실천협의회 공동대표 성래운,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송건호, 민중문화운동연합 공동대표 원동석, 한국정치범동지회 회장 윤반웅,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 회장 윤영규, 전국농민협회 공동회장 장영근, 한국기자협회 회장 정구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조경희, 함석헌선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홍성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회장 홍숙자,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고광진,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고정훈, 김수환 추기경,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회장 김승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지길,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이돈명, 대한불교조계종 총정 이성철, 한국카톨릭농민회 회장 서정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용술, 지학순선생, 이상 49통)

나. 북한, 남북연석회의 제의 관련 2차 대남편지

대한민국 국무총리 리 현 재 귀하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허담위원장은 1988년 3월8일에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의 원본을 귀하에게 보내면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1988년 3월 8일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 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 위임에 의하여 북남련석회의소집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1월 13일부 편지를 귀하에게 보낸바 있습니다.

편지에서 우리는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소집을 위하여 2월 19일에 판문점에서 예비회의를 가질것을 정중히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비회의에 내보낼 대표단을 구성한것을 비롯하여 회의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편지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도 취하면서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이 오기를 인내성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지를 보낸 때로부터 5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 남조

선의 당국과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로부터 아무런 회답편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사심없는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담은 편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식 대답을 보내오지 않으면서 련석회의소집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편지를 받아가자마자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려객기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우리가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중지문제에 대한 토의를 제기한 때에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립장과는 너무도 상반되며 북남련석회의소집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반대화, 반평화적인 그릇된 태도로 말미암아 북남련석회의 예비회의가 예정된 날자에 열리지 못하고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실망을 가져다준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민족의 념원으로 보나 북남련석회의는 지체없이 소집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북과 남사이에는 오해와 불신, 대결과 전쟁위험이 날을 따라 커가고 있습니다.

민족분렬의 년륜이 더해갈수록 격화되여가고 있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는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겨레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수 없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당장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동족으로서 화해하고 단합하는 방도를 찾아야 하며 통일된 조국에서 부강번영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평화롭게 살아나갈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이 극도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쌍방의 책임있는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온 겨레의 의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협상마당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라고 간주합니다.

북남련석회의는 바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당, 각파의 총의를 집대성할 수 있는 가장 적중한 협상방도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북남련석회의제안에는 북남대화에 직접 참여할것을 주장하여 온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의사도 반영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남조선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 어느곳에서나 열려있다》고 하면서 군사분계선에서도 《화해의 봄》을 가져오자고 하는 말이 울려나왔는데 이것이 진심이라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북남련석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협상해나간다면 민족앞에 가로놓인 당면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것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할수 있을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걱정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제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거족적인 대화의 광장에 나서는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동족사이에 화해하고 단합하려 하지 않고 반목하고 대결하는 길로 나가는것은 민족을 희생시키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반민족적 행위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당국을 포함한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어느길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길이고 어느 길이 민족대결과 전쟁의 길인가를 옳바로 식별하고 참된 애국의 길인 북남련석회의 마당에 나서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를 오는 3월 28일 판문점에서 가질것을 다시금 정중히 제의합니다.

우리의 이 제의는 어떻게 하나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계 인사들과 힘을 합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립장의 표시입니다.

나는 귀하가 우리의 이 제의에 심사숙고하고 력사적인 북남련석회의를 하루빨리 소집하기 위하여 응분의 노력을 기울이며 긍정적인 대답을 보내오리라는 희망을 표명합니다.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허 담

1988년 3월 8일

평 양

※ 북측은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팔호안의 인사들에게 보내왔음

(민주정의당 총재 노태우, 통일민주당 총재대행 김명윤,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한국국민당 총재 이만섭, 신한민주당 총재 신도환, 민주한국당 총재 유치송, 사회민주당 위원장 권두영, 윤보선 전대통령, 최규하 전대통령, 김영삼 전통일민주당 총재,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김동인,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김정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김희택, 민주쟁취노동자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유동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사회운동 대표 유인태·이철,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이우정,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위원장 이총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문인구,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박일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박태원, 한국인권옹호협회 회장 박한상, 민주교육실천협의회 공동대표 성래운,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송건호, 민중문화운동연합 공동대표 원동석, 한국정치범동지회 회장 윤반응,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 회장 윤영규, 전국농민협회 공동회장 장영근, 한국기자협회 회장 정구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 홍숙자, 계훈제선생, 고은선생, 박형규선생, 백기완선생, 함석헌선생,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고광진,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고정훈,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회장 김승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장 김지길,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이돈명,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이성철, 한국카톨릭농민회 회장 서경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용술,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지학순 선생 이상 47통)

4. 남북학생교류

가. 문교부장관,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대북서한

* 1988.7.15, 방송공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변 영 림 귀하

남북이 서로 갈라진 지 43년을 헤아리는 지금 우리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갈구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읍니다.

더우기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서 화해와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세계사적 조류에서 볼 때 우리겨레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게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맥을 이어온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수재물자의 인도·인수를 통해 상부상조의 선례를 남겼으며,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 교환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40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인사들이 남북을 왕래한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같은 선례와 경험은 소중한 싹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측은 지난 6월 3일 국무총리 서한을 통해 남북간에 인적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을 귀측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어서 6월 9일 통일원장관 성명을 통해 남북학생의 교류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도 밝힌 바 있읍니다.

우리는 귀측 또한 최근에 남북간의 다각적인 인적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으며 특히 학생교류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 있읍니다.

남북간에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쌍방 학생들간의 교류는 그 자체로서 매우 뜻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교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도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나는 남북학생교류 추진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남북교육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이미 쌍방간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조국순례대행진」의 추진문제와 「친선체육경기」의 교환개최문제, 그밖에 학생교류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순례대행진」은 남북 각기 「조국순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토록 하며, 자기측 지역만을 순례한 후 판문점에서 만나는 방식보다는 우리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백두산으로, 귀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한라산으로 행진한 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순례단의 규모는 쌍방 각기 1,000명 정도로 하되 1985년 9월에 실시되었던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식을 적용하여 상호 동시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국순례대행진」의 시기와 일정은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올해안에 첫번 행진을 갖고 내년부터 연 4회 정도로 점차 회수를 늘려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는 남북 쌍방의 대학스포츠위원회가 주관토록 하며, 우선 축구·남녀탁구·남녀배구 등 구기종목을 택해 쌍방 각기 200명 정도로 선수단을 구성하되 점차 경기종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친선체육경기의 교환개최는 봄·가을로 정례화시키고 1차 경기는 금년 10월 평양에서, 그리고 2차 경기는 내년 4월 서울에서 각각 4박5일 정도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학생교류사업이 진전되면 남북학생들간에 음악·미술·연주·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연 및 전시회의 교환개최, 금강산·경주 등 명승지와 민족사적지를 관광하는 「수학여행단」교환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학생교류를 원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통행절차 및 각종 편의제공 등에 대한 쌍방 당국간의 합의와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그간 남북간의 선례를 따른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북학생교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교육당국간 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가능한 한 7월 30일안에 귀측이 지정하는 날짜에 판문점에서 첫 회담이 열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쌍방의 대표단은 차관(부부장)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학생교류가 실현되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적 신뢰와 일체감을 회복시켜 줌과 아울러 앞으로 남북간에 다각적인 인적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8년 7월 15일

대한민국 문교부장관 김 영 식

나.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남북학생회담 제의 대남편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앞

나는 위임에 의하여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의장에게 보냅니다.

조 선 학 생 위 원 회

위원장 김 창 룡

1988년 12월 26 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앞

남녘의 학우들!

오늘 우리는 남녘의 청년학생들과 함께 지구상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적인 반제평화운동에 힘을 합치고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해나가려는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그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1989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는

《반제련대성,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리게 된다.

이번 평양축전에서는 5대륙의 170여개나라 청년학생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반전, 반핵,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련대와 각국 청년학생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식의 정치행사들과 체육행사들, 문화예술행사들이 성대하게 진행되게 될 것이다.

40여년의 축전력사이래 처음으로 동방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에서 진행하는것은 북과 남의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자랑이고 기쁨이며 온 겨레가 함께 박수를 보내야 할 민족공동의 대경사이다.

지금 평양축전준비사업은 세계청년학생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본격히 추진되고 있다.

5대륙의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은 지난해 2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제준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각 나라별로 민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양축전에 참가할 준비를 적극 다그치고 있다.

우리 북반부청년학생들도 이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를 내오고 축전행사에 필요한 방대한 시설들과 모든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전국, 전민의 지원밑에 마감단계에서 갖추어나가고있으며 다채로운 행사준비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양축전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뜨겁게 끓어번지고있는것은 그대들 남녘의 청년학생들에 대한 생각이다.

남녘의 청년학생들은 우리와 한피줄을 나눈 형제이며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평화의 길도 함께 개척하고 통일의 돌파구도 함께 열어 나가야 할 조선의 새세대들이다.

우리들은 서로 부르고 화답하며 판문점회담장에로 달리던 력사적인 6·10과 8·15의 그날,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사는 우리들이지만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는 하나의 마음이며 이 길에 청춘을 바치려는 불같은 투지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함께 용솟음치고있음을 똑똑히 확인하였다.

배움의 마당에서 우리와 함께 포부와 리상을 꽃피워나가야 할 남녘의 청년학생들이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북반부의 청년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외래제국주의의 간섭과 침략정책으로 민족의 영구분렬과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짙어가고있는 조선반도의 엄혹한 현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의 모든 청년학생들이 반제, 평화, 통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힘을 합쳐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그대들이 평양축전에 참가할것을 주장하고있는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와 력사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열렬히 지지환영한다.

우리는 래년 7월초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갈망하는 남녘의 애국적 청년학생들을 초청한다는것을 귀단체에 정중히 알리는바이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남학생회담을 래년 3월초순경에 판문점에서 가지며 회담대표단은 북과 남이 각기 9～11명으로 구성할것을 희망한다.

평양축전에 남녘의 학우들이 참가하게 되면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획기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게 될것이

며 세계청년들과의 친선과 련대성을 깊이하는데도 좋을것이다.

우리모두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위업을 위하여 청춘의 정열과 애국의 의지를 모아 다시한번 분발하자!

평양의 푸른 하늘가에 5대륙의 기발이 높이 날리게 될 축전의 그날 6·10과 8·15에 이루지 못했던 우리들의 만남을 기어이 성취하고 평화로운 통일조국에서 살려는 조선청년들의 굳센 의지와 애국적 기개를 세계만방에 남김없이 시위하자!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조 선 학 생 위 원 회

1988년 12월 26일

5. 남북체육회담

가.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남북체육회담 관련 1차 대남편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귀하

귀하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1990년 9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제11차 아세아경기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아세아지역 나라들사이에 평화와 친선과 체육기술의 증진을 위하여 진행되는 이 경기대회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하나의 팀을 무어 공동으로 출전하게 될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유일팀으로 출전할데 대한 문제는 비단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제기된것이 아닙니다.

우리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더우기 우리측의 진지하고 거듭되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사이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체육회담이 열렸고 어떤 때에는 유일팀구성문제토의에서 진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팀구성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체육회담들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유일팀구성문제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친선의 리념밑에 진행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세상사람들앞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서로 승벽내기를 하면서 대결하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제무대에서 동족끼리 서로 대결하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를 끝장내야 하며 그러자면 유일팀을 구성하여 당면한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공동으로 출전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하나의 팀을 무어 공동으로 출전하게 되면 북남체육인사들사이의 단합과 뉴대를 강화할 뿐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1990 년 9 월에 열리게 되는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할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 명의 대표들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1989 년 2 월하순경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질것을 희망합니다.

경기개막의 날까지는 아직 시간도 있고 내외정세도 우리들의 접촉에 유리한 조건을 지이주고있습니다.

쌍방이 단합과 통일의 립장에서 서로 마주앉아 격의없이 진지하게 토의한다면 반드시 북남유일팀구성문제를 성사시켜나갈수 있을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1988년 12 월 21 일

나.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남북체육회담 관련 1차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귀하

나는 12월 21일자 귀하의 편지를 받았읍니다.

나는 먼저 귀하가 남북체육인간의 회담을 갖자고 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 입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들은 사상과 제도를 뛰어넘어 화해와 협력의 길을 추구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온 겨레는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바라고 있읍니다.

남북의 체육인들은 이같은 내외정세의 추세와 겨레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땅히 체육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우리측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입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나는 1990년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남북올림픽위원회간의 회담을 갖자는 귀하의 제의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남북체육교류 실현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쌍방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5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회담을 1989년 3월 9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합니다.

나는 이 회담이 좋은 열매를 맺어 앞으로 있을 그밖의 각종 국제경기대회에도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1988년 12월 30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종 하

Ⅱ. 남북직통전화 통지문

남북직통전화 통지문 통계

구 분	국회 회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남북 연석 회의	남북학생교류			적십자 회담	체육 회담	계
		고위당국자 회담	고위급정치군사 및 3자 회담	고위당국자 회담 예비회담		「6·10」,「8·15」 남북학생회담	남북교육 당국회담	세계청년학생 축전 관련 남북학생회담			
남	14	1	3	1	3	4	1	1	1	2	31
북	13	1	2	1	3	3	1	1	1	2	28
계	27	2	5	2	6	7	2	2	2	4	59

1.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가. 대한민국 국회의장, 북한의 서울올림픽대회 참가촉구 대북서한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대북서한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16 (토) 12 : 20 ~ 12 : 24
- 통 화 자 : (남) 윤 정 원 (북) 김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7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18일 (월) 오후 3시(표준시간)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7월 16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2) 북측, 대북 전통문 수정제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18 (월) 11 : 15 ~ 11 : 19

○ 통 화 자 : (남) 윤 정 원 (북) 이 철 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7월 16일부 귀하의 전화통지문에서 양형섭 의장의 직함이 우리측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에 있는 실정에 맞지 않게 부정확하게 명기된 관계로 본인에게 아직 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리면서 귀측에서 직함을 정확히 써서 다시 보내는 조치를 예정시간 안으로 취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1988년 7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3) 우리측, 대북전통문 수정통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18 (월) 12 : 12 ~ 12 : 16

○ 통 화 자 : (남) 윤 정 원 (북) 김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7월 1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18일(월) 오후 3시(표준시간)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7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4) 북측, 대북서한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18 (월) 14 : 19 ~ 14 : 25
- 통 화 자 : (남) 이 명 수 (북) 김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7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귀하의 편지를 넘겨 받기 위하여 1988년 7월 18일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1988년 7월 18일

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연석회의 제의 1차 대남 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20 (수) 14 : 46 ~ 14 : 51
- 통 화 자 : (남) 윤 정 원 (북) 김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의 요청에 따라 귀측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7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21일 (목) 오후 3시(표준시간)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내려고 하니 귀측에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1988년 7월 20일

(2) 우리측,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21 (목) 10 : 34 ~ 10 : 41
- 통 화 자 : (남) 윤 정 원 (북) 강 정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7월 2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21일 (목) 오후 3시 (표준시간)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88년 7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연석회의 제의 2차 대남 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25 (월) 11 : 08 ~ 11 : 14
- 통 화 자 : (남) 윤 정 원 (북) 한 영 국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국회의장에게 정확히 전달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7월 25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귀하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26일 (화) 오후 3시(표준시간)에 연락대표 2명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내니 귀하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1988년 7월 25일

(2) 우리측,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26 (화) 10 : 36 ~ 10 : 40

ㅇ 통 화 자 :(남) 서 동 훈 (북) 이 철 호

ㅇ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7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26일 (화) 오후 3시 (표준시간)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88년 7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라. 대한민국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제의 1차 대북서한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대북서한 전달에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29 (금) 15 : 02 ~ 15 : 07

○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이 철 호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7월 2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1988년 8월 1일 (월) 오전 10시(표준시간)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7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2) 북측, 대북서한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30 (토) 10 : 30 ~ 10 : 37

○ 통 화 자 : (남) 서 동 훈 (북) 강 정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7월 30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귀하의 편지를 받기 위하여 1988년 8월 1일 (월) 오전 10시 (표준시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1988년 7월 30일

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연석회의 제의 3차 대남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 8 (월) 10 : 32 ~ 10 : 38

○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김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8월 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8월 9일 (화) 오전 10시(표준시간)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내니 귀측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1988년 8월 8일

(2) 우리측,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o 통화일시 : 1988. 8. 8 (월) 13 : 03 ~ 13 : 08

o 통 화 자 : (남) 서 동 훈 (북) 안 영 구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 8월 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1988년 8월 9일 (화) 오전 10시 (표준시간)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88년 8월 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바. 대한민국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제의 2차 대북서한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대북서한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11 (목) 15 : 06 ~ 15 : 11

○ 통 화 자 : (남) 서 동 훈 (북) 김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8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8월12일 (금) 오후 3시(표준시간)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8월 1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2) 북측, 대북서한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12 (금) 11 : 15 ~ 11 : 21

○ 통 화 자 :(남) 서 동 훈 (북) 김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8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귀하의 편지를 받기 위하여 1988년 8월 12일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1988년 8월 12일

사. 남북국회회담 제1차 준비접촉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제1차 준비접촉 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17 (수) 11 : 00 ~ 11 : 09

○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김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8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8월 9일부 우리의 편지와 관련하여 귀하가 8월 12일부 회답편지에서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상봉 날짜를 우리가 제기한 8월 17일 대신 8월 19일로 수정제의한 사실에 유의하였읍니다.

나는 북남국회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에서 불가침문제와 올림픽문제를 시급히 토의, 해결하려는 염원으로부터 우리측에서 8월 19일 오전 10시 (표준시간) 5명의 상봉대표와 3명의 수원을 판문점 우리측 건물인

통일각에 내보내기로 하였다는 것을 귀하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1988년 8월 17일

(2) 우리측, 제1차 준비접촉 대비 실무협의 제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17 (수) 15 : 02 ~ 15 : 16
-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한 영 국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8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귀하의 8월 17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읍니다.

나는 1988년 8월 19일 (금) 오전 10시(표준시간) 귀측 지역 통일각에 우리측 대표 5명을 보낼 것입니다.

나는 남북국회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8월 19일 접촉이 귀측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귀측 지역에 들어가는 우리측 인원(기자, 지원인원 포함)의 왕래, 신변안전 및 통신문제 등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1988년 8월 18일 (목) 오후 2시(표준시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연락관 및 통신실무자간에 접촉을 갖기를 바랍니다.

1988년 8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3) 우리측, 제1차 준비접촉 대표단 명단통보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17 (수) 17 : 58 ~ 18 : 04
-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한 영 국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8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1.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에 나갈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o 수 석 대 표 : 박 준 규 (민주정의당)

o 대 표 : 이 한 동 (민주정의당)

o 대 표 : 김 봉 호 (평화민주당)

o 대 표 : 박 관 용 (통일민주당)

o 대 표 : 김 용 환 (신민주공화당)

2. 우리측 대표단은 1988년 8월 19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에 대표별 신임장을 휴대할 것입니다.

1988년 8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4) 북측, 제 1 차 준비접촉 대표단 명단통보 전통문

o 통화일시 : 1988. 8.18 (목) 11 : 15 ~ 11 : 22

o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한 영 국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8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에 나갈 우리측 대표단 성원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단 장 : 전 금 철(조선노동당 소속 대의원)

대 표 : 안 병 수(조선노동당 소속 대의원)

대 표 : 이 동 철(조선노동당 소속 대의원)

대 표 : 이 주 웅(조선사회민주당 소속 대의원)

대 표 : 박 문 찬(천도교청우당 소속 대의원)

이와 함께 나는 쌍방 실무자들의 접촉을 위해 1988년 8월 18일 오후 2시(표준시간) 실무일꾼들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1988년 8월 18일

아.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쌍방 수석대표 단독접촉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쌍방 수석대표 단독접촉일시 통보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23 (화) 10 : 15 ~ 10 : 23

○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김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쌍방 대표들의 판문점 상봉 우리측 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8월 23일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남측 수석대표 박 준 규 귀하

나는 22일에 있은 제3차 판문점 상봉에서 귀하가 제기한 쌍방 단장 개별접촉에 동의하면서, 가능한 대로 8월 23일 오전 10시(표준시간) 판문점 우리측 통일각에서 비공개로 만날 것을 희망합니다.

접촉에서는 기록을 위하여 각기 수원 1명씩 동석하도록 하며, 안내를

위하여 2명의 실무일꾼들이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왕과 통신보장은 지금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 금 철

1988년 8월 23일

(2) 우리측, 쌍방 수석대표 단독접촉일시 수정제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23 (화) 15 : 48 ~ 15 : 54
- 통 화 자 :(남) 서 동 훈 (북) 김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대표단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8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전 금 철 귀하

나는 8월 23일 오전 9시 15분부터 23분 사이에 보내온 귀하의 전화통지문을 받았읍니다.

8월 23일 오전 10시에 쌍방 수석대표가 만나자는 귀하의 제의가 시간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제의합니다.

첫째, 쌍방 수석대표간의 접촉은 8월 24일 (수) 오전 10시(표준시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둘째, 기록을 위하여 각기 1명의 수행원을 동석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본인의 제의에 대해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1988년 8월 23일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남측 수석대표 박 준 규

(3) 북측, 쌍방 수석대표 단독접촉장소 수정제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23 (화) 16 : 56 ~ 17 : 03
- 통 화 자 :(남) 서 동 훈 (북) 김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우리측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8월 23일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남측 수석대표 박 준 규 귀하

나는 쌍방 단장들 사이의 비공개접촉을 1988년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가지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나 장소는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이 비밀보안상 고려되는 점이 있고 미군측이 관할하는 건물이므로 우리측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희망하며, 만일 귀측에서 이에 이의가 있다면 귀측 평화의 집에서 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 금 철

1988년 8월 23일

(4) 우리측, 쌍방 수석대표 단독접촉장소 수정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23 (화) 17 : 48 ~ 17 : 54
- 통 화 자 :(남) 서 동 훈 (북) 이 철 호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대표단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 년 8 월 23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전 금 철 귀하

나는 귀하가 쌍방 수석대표간의 접촉을 1988 년 8 월 24 일 오전 10 시 (표준시간)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평화의 집」에서 갖자는데 동의합니다.

쌍방 수석대표간의 단독접촉은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상호 중계를 하지 않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1988 년 8 월 23 일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남측 수석대표 박 준 규

자. 남북국회회담 제 4 차 준비접촉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제 4 차 준비접촉 제의 전통문

- ㅇ 통화일시 : 1988. 8.24 (수) 17 : 03 ~ 17 : 08
- ㅇ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김 철
- ㅇ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대표단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8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전 금 철 귀하

나는 남북국회회담 제4차 준비접촉을 1988년 8월 26일 (금) 오전 10시(표준시간)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 따르는 귀측 인원의 왕래, 신변안전 및 통신문제등은 지난 3차례 접촉시의 관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1988년 8월 24일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남측 수석대표 박 준 규

(2) 북측, 제4차 준비접촉 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8.24 (수) 18 : 46 ~ 18 : 52

○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김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북측 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책임적으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8월 24일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박 준 규 귀하

나는 귀측이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제4차 판문점 상봉 날짜를 우리측이 제기한 1988년 8월 25일이 아니라 8월 26일로 수정제의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상봉을 기어이 성공시키려는 입장으로부터 8월 26일 오전 10시 우리측 대표단 일행이 예정된 상봉장소에 나가게 됨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 금 철

1988년 8월 24일

차.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제7차 준비접촉연기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12.13 (화) 10 : 04 ~ 10 : 11

○ 통 화 자 :(남) 김 광 호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12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오는 12월 15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을 우리측 대표단의 사정으로 연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을 1988년 12월 29일(목요일) 또는 그 이후 귀측이 정하는 날짜에 갖기를 희망합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8 년 12 월 13 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 재 순

(2) 북측, 제 7 차 준비접촉연기 동의 전통문

o 통화일시 : 1988.12.14 (수) 15 : 05 ~ 15 : 10

o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내용을 귀측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 년 12 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대 한 민 국

국회의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귀측 내부사정으로 12 월 15 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북남대표들의 제 7 차 판문점 상봉을 오는 12 월 29 일로 미루자고 한 귀하의 전화통지문에 유의하면서 우리측 대표단을 그

날 판문점에 내보낼 것임을 통지합니다.

1988년 1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카. 우리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대표단 교체통보 전통문

- ㅇ 통화일시 : 1988.12.26 (월) 14 : 21 ~ 14 : 27
- ㅇ 통 화 자 :(남) 서 동 훈 (북) 정 영 수
- ㅇ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12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대표단의 박준규 수석대표와 이한동 대표가 다음과 같이 교체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 수석대표 : 채문식 (국회의원 , 민주정의당)

○ 대　　표 : 김현욱 (국회의원 , 민주정의당)

1988 년　12 월　26 일

대　한　민　국

국회의장　김　재　순

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대북서한 전달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대북서한 전달예고 전통문

〈전통문 통지 이전 남북기계실간 통화(17:24 ~ 17:25)〉

남 : 전통문 하나 보낼 게 있다.

북 : 갑작스런 전화라서 지금 당장 전통문을 받기가 곤란하다.
관계부서에 보고를 해야 되니 20 ~ 30분 후에 다시 전화 걸어 달라.

남 : 알겠다.
5시 50분에 다시 전화하겠다.

- 통화일시 : 1988. 5.31 (화) 17 : 50 ~ 17 : 57
- 통 화 자 : (남) 윤 정 원 (북) 김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5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이 근 모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6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표준시간)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 현 재

(2) 북측, 대북서한 접수거부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6. 2 (목) 17 : 00 ~ 17 : 27
-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이 명 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귀측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책임적으로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 현 재 귀하

나는 우리 적십자회를 통하여 귀하의 5월 31일부 통지문을 받았읍니다. 북과 남 사이에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측은 북남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나라의 긴장상태가 극도로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사태를 깊이 우려하여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해로 되게 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지난 1월 14일 북남연석회의 소집 제안을 담은 편지를 귀하와 귀하를 통하여 귀측의 여러 인사들에게 보낸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귀측이 불성실하게도 북남연석회의 예비회의 날짜가 지나도록 우리의 편지에 대한 회답조차 하지 않는 형편에서 우리는 지난 3월 8일에 두번째 편지를 보내어 대답을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귀하는 다섯달이 되어오는 오늘 이때까지도 회답편지를 보내지 않고 있읍니다.

귀하의 이와 같은 처사는 북과 남이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아오던 종전의 관례에 심히 배치될 뿐 아니라 초보적인 예의와 상식에도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는 귀측이 문을 굳게 닫아매고 당국과 정치인들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모처럼 제기된 북과 남의 대학생들의 상봉이라도 마련해 주려는 염원으로부터 지난 4월 2일과 5월 18일 두차례에 걸쳐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대학총장과 대학생들이 남조선의 대학총장과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

측은 그때마다 당치않은 구실을 들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마저 거부하였읍니다.

귀측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무려 네번씩이나 회답편지도 보내지 않고 편지를 받아가지도 않음으로써 북남 사이에 일찌기 본 적이 없는 나쁜 전례를 남겨 놓은데 대하여 응당 반성하여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라도 우리측에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대화를 원하고 북남 사이에 벌여있는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쌍방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예의와 관례는 존중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일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 우선 북남연석회의 제안을 담은 우리의 두차례의 편지에 대한 공식적인 회답편지를 보내와야 하며 아울러 두차례나 받아가는 것을 거부한 우리측 대학총장과 대학생들의 편지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마땅히 우리측에 보내주어야 할 회답편지를 보내오고 전달하여야 할 편지를 전달하는 의무를 이행한다면 호상성의 원칙에서 귀하의 편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이 근 모

1988년 6월 2일

나. 북한 정무원총리,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및 3자회담 제의 대남 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1차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11.15 (화) 10 : 01 ~ 10 : 06

○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김 동 해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11월 15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 현 재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11월16일 (수)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내니 귀측에서 편지를 접수하여 갈 인원들을 보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이 근 모

1988년 11월 15일

(2) 우리측,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1차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11.15 (화) 14 : 01 ~ 14 : 07

○ 통 화 자 :(남) 윤 정 원 (북) 김 동 해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11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이근모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1988년 11월 16일 (수)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88년 11월 15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 현 재

(3) 우리측,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1차 대남편지 회답통보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12.13 (화) 10 : 11 ~ 10 : 15

○ 통 화 자 :(남) 김 광 호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서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12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귀하

나는 귀측의 지난 11월 16일자 편지와 관련하여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회답을 보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988년 12월 13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서리 강 영 훈

(4) 북측, 3자회담 제의 대남편지 전달에 관 전통문

o 통화일시 : 1988.12.17 (토) 10 : 00 ~ 10 : 08

o 통 화 자 :(남) 최 상 천 (북) 김 은 달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12월 17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20일(화)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보낼 것입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1988년 12월 17일

(5) 우리측, 3자회담 제의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12.19 (월) 10 : 02 ~ 10 : 08

○ 통 화 자 :(남) 서 동 훈 (북) 김 온 달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12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20일 (화)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88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제의 1차 대북서한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대북서한 전달에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12.26 (월) 14 : 28 ~ 14 : 32
- 통 화 자 :(남) 서 동 훈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12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28일 (수) 오후 2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 년 12 월 26 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2) 북측, 대북서한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12.28 (수) 10 : 13 ~ 10 : 17

○ 통 화 자 :(남) 서 동 훈 (북) 김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 년 12 월 28 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하가 보내는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28일(오늘) 오후 2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1988 년 12 월 28 일

3. 남북연석회의

가. 북한, 남북연석회의 제의 1차 대남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적, 1차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1.13 (수) 15:06 ~ 15:10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이명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귀측 당국과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1월 14일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내오니 귀측에서 상응한 인원을 내보내어 편지를 접수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1월 13일

(2) 한적, 1차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1.14 (목) 09:28 ~ 09:31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이철호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1월 13일부 귀하의 전화통지문과 관련, 귀측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88년 1월 14일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88년 1월 1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3) 북적, 1차 대남편지 당사자 전달여부 확인 전통문

o 통화일시 : 1988. 2. 9 (화) 10:00 ~ 10:07

o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이철호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지난 1월 14일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정무원, 제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가 채택한 귀측 당국과 제정당·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1월 13일부 편지를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줄것을 귀하에게 요청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났지만 남조선측 당국자들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회답도 보내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에서는 당사자들의 편지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나는 귀하가 우리측의 1월13일부 편지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여부를 속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2월 9일

(4) 한적, 1차 대남편지 당사자 전달확인 전통문

o 통화일시 : 1988. 2. 12 (금) 09 : 33 ~ 09 : 38

o 통 화 자 : (남) 유진영 (북) 이철호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2월 9일 귀하의 전화통지문을 받았읍니다.

귀측의 1월 13일자 편지는 이미 우리측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대변인은 지난 1월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당국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그밖에 다른 회신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88년 2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나. 북한, 남북연석회의 제의 2차 대남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적, 2차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3. 5 (토) 10:22 ~ 10:28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이철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위임에 의하여 북남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귀측 당국과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3월 8일(화) 오전 10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내니 귀측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는 귀하가 우리의 편지를 접수하면 남측의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3월 5일

(2) 한적, 2차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3. 7 (월) 11:30 ~ 11:34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이철호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3월 5일부 귀하의 전화통지문과 관련, 귀측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88년 3월 8일(화) 오전 10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88년 3월 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4. 남북학생교류

가. 「6·10」·「8·15」 남북학생회담 관련 쌍방 전통문

(1)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 및 총장, 「6·10」남북학생회담 관련 1차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4. 2(토) 11:12 ~ 11:16
- 통 화 자 : (남) 이종렬 (북) 이철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의 요청에 따라 귀측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4월 4일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내니 귀측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길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4월 2일

(2) 우리측, 「6·10」남북학생회담 관련 1차 대남편지 접수거부 전통문

〈전통문 통보 이전 남북기계실간 통화〉

- 10:55분 기계실간의 통화에서 11:00에 남북직통전화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북측은 성원이 없다는 이유로 14:00에 연락해 줄 것을 요망했음.
- 그후 수차례 아측의 독촉결과 담당성원을 찾아서 연락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11:42 북측에서 전화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11:45~11:52 전통문을 발송하였음.

(남) 오늘 11시에 통화를 하고자 했었는데 안계셨던 모양이지요?

(북) 예. 어디 좀 갔다왔읍니다.

o 통화일시 : 1988. 4. 4(월) 11:45~11:52

o 통 화 자 : (남) 이종렬 (북) 최철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귀하의 4월 2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읍니다.

나는 오늘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귀측이 요청한 그와 같은 유의 편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되풀이 하는 것이 건전한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읍니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내외의 희망과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이상 이같은 비생산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귀하가 적십자인도주의 사업과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중단된 적십자회담 재개에 호응해 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4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3) 남북학생회담 북측 준비위원회, 「6•10」남북학생회담 관련 2차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5. 18 (수) 11 : 04 ~ 11 : 09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이철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학생회담 북측 준비위원회 요청에 따라 5월 17일 평양에서 있은 전국대학생연합대회에서 채택된 남조선의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귀측 해당단체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에서는 2명의 연락원이 5월 20일 (금)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가게 되므로 귀하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책임적으로 취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 원 장 손 성 필

1988년 5월 18일

(4) 우리측, 「 6·10 」 남북학생회담 관련 2차 대남편지에 대한 우리측 입장 추후통보 전통문

o 통화일시 : 1988. 5. 19 (목) 16 : 00 ~ 16 : 03

o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이성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귀하의 5월 18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전화통지문에 대한 회답은 추후 통보할 것임을 알립니다.

1988년 5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5) 우리측, 「 6·10 」 남북학생회담 관련 2차 대남편지 접수거부 전통문

o 통화일시 : 1988. 5. 24 (화) 10 : 16 ~ 10 : 24

o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이철호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남북학생회담 문제와 관련, 지난 4월 4일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그러한 편지전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측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나는 귀측이 남북학생회담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와 같은 적십자 본연의 임무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기를 기대합니다.

1988년 5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6) 남북학생회담 북측대표단, 「8.15」 남북학생회담 관련 대남편지 전달에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 2(토) 11:33~11:40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김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학생회담 북측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측 학생대표단 김중기 단장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년 7월 2일

북남학생회담 남측대표단 김 중 기 단장 앞

나는 8월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국토종단대행진과 8•15학생회담과 관련한 우리의 편지를 남측대표단 김중기 단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1988년7월4일(월) 오후3시(평양시간)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과 대표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에서도 우리의 편지를 받아갈 대표를 판문점에 파견해 주기 바랍니다.

북남학생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고 응 삼

1988년 7월 2일

(7) 우리측, 「8.15」 남북학생회담 관련 대남편지 접수거부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 4(월) 11:06~11:14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김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귀하의 7월2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읍니다.

귀측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측은 이미 남북간의 다각적인 인적교류 추진을 제의해 놓고 있으며, 특히 학생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나는 귀측이 7월4일의 편지전달 계획을 유보하고 남북 쌍방의 책임있는 해당당국간에 남북대학생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귀하가 본인의 이같은 의견에 뜻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적십자인들은 한시도 지연될 수 없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인도적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귀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988년 7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나. 남북교육당국회담 관련 쌍방 전통문

(1) 대한민국 문교부장관, 「남북교육당국회담」제의 대북서한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 13(수) 10:37 ~ 10:41
- 통 화 자 : (남) 이종렬 (북) 이철호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7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변 영 림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표준시간)에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7월 13일

대한민국 문교부장관 김 영 식

(2) 북한 교육위원회 위원장,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대북서한 접수거부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 14(목) 17:01 ~ 17:28
- 통 화 자 : (남) 손종수 (북) 김 철
- 내 용

대한민국 문교부장관 김 영 식 귀하

북남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직통전화를 통해 서로 자기의 의사를 상

대방에 알리고 그에 기초하여 상대방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북남사이에 존재하여 온 정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기에 와서 귀측은 이러한 관례를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북남관계 단절의 벽을 더욱 두터이 쌓는 매우 불손한 일들을 하였읍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같이 지난 3월 남측 대학생들에 의하여 학생회담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후 지난 7월초까지 우리공화국 북반부청년학생들은 3차례에 걸쳐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귀측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귀측은 그때마다 당치않는 구실을 붙여 우리 대학생들의 편지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거부하였읍니다.

귀측은 또한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귀측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가는 것도 거부하였읍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초보적인 예의마저 지킬줄 모르고 무례하게 행동한 귀측이 오늘에 와서 우리보고 그 무슨 편지를 받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귀측이 지난 6월, 6만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판문점으로 나오는 학생들을 유혈적으로 탄압하고 마침내는 북남학생회담을 유산시킨 행위에 대하여 학생들과 학부형들과 온 민족앞에 사과하고 처신을 바로 하려고 할 대신, 여전히 학생회담 앞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귀측이 학생들 자신의 문제에 개입하려 하는 태도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환영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측이 학생들의 교류문제를 맡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하기 썩 이전에 벌써 북과 남의 학생들은 스스로가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지향하여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뒤늦게 당국이 거기에 끼어들어 주선이니 뭐니하고 간섭할 조건이 없읍니다.

당국이 할일이란 오직 북과 남의 학생들이 하루 빨리 만나 회담도 하고 체육대회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며 그들이 앞으로 1천명 교류를 하건 1만명 교류를 하건 그 필요한 편의와 조건을 잘 보장해 주는 것 뿐입니다.

나는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학생들의 문제는 학생들 자신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유익하고 통일을 위하여서도 이롭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부터 귀측이 이제라도 북남 사이에 존재하여온 좋은 관례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고 우리의 편지를 3번씩이나 받아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남조선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우리 대학생들의 편지를 접수하여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며 북과 남의 대학생들의 회담에 더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만일 귀측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보인다면 그때에 가서 우리는 귀측의 편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바 입니다.

1988년 7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위원장

변 영 립

다.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남북학생회담

(1) 북측,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남북학생회담 제의 대남편지 전달 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12. 23 (금) 10 : 04 ~ 10 : 09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김영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에서는 남조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귀 적십자사를 통하여 해당단체에 전달해 줄 것을 희망하여 왔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1988 년 12 월 26 일 (월) 오전 10 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 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입니다.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88 년 12 월 23 일

(2) 우리측,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남북학생회담 제의 대남편지 접수 동의 전통문

o 통화일시 : 1988. 12. 24 (토) 10 : 02 ~ 10 : 05

o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김영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1988년 12월 26일(월) 오전 10시 귀측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88년 12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5. 남북적십자회담

가. 한적, 「7·7선언」후속조치 관련 본회담 재개촉구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 13 (수) 10 : 41 ~ 11 : 13
- 통 화 자 : (남) 이종렬 (북) 이철호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1985년 12월 3일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제11차 본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도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적십자 쌍방은 70년대의 7차례 회담에 이어 80년대에 들어와 3차례의 회담을 가진 결과, 의제 5개항 사업 토의에 적지않은 진전을 보았을 뿐 아니라 40년만에 처음으로「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 교환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이산가족 재회사업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해준 바 있읍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주고 그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적십자인들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할 때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것 입니다.

더우기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이 내놓은 제안을 비교해 볼 때 합의서 형식과 일부 내용상에 차이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의제 5개항

사업 실시를 위한 방법 등 기본문제에 의견접근을 보였다는 점에서, 쌍방이 앞으로 한두차례 정도의 회담을 갖게 된다면 본회담이 완전히 타결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교류, 협력, 화해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이라도 남북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을 적극 주선·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루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시급히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 바 입니다.

첫째, 이산가족 당사자가 고령으로 인하여 생전에 자기 혈육의 소식을 알고자 할 때 그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 이들이 귀측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친척의 생사여부와 거주지 확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우리측은 이를 귀측에 전달할 것이며 귀측은 이를 접수해서 이에 대한 회신을 우리측에 보내주고 귀측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우리측에 보내올 경우 우리측도 이를 접수해서 우리측 지역내의 가족·친척을 찾아 그 소식을 귀측에 회신해 준다.

이를 위해 쌍방 적십자간의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를 활용한다.

둘째, 지난 1985년 9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시 혈육을 상봉한 이산가족들 사이에 서신을 교환해 주도록 한다.

아울러 쌍방 적십자간의 신청서와 회신 교환을 통해 생존과 거주지가 확인된 이산가족들 사이의 서신도 교환해 주도록 한다.

이 서신교환 업무는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가 담당한다.

세째, 해외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들에게 생사·주소 확인,서신왕래 그리고 가족상봉의 기회를 알선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제적십자기구의 협조를 받아 이를 추진한다.

네째, 올해안에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희망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사업들은 본회담이 아닌 실무적인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리라는 점에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7월 30일 이내에 귀측이 희망하는 날짜에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나는 귀측의 이산가족이 자기 혈육을 상봉하기 위하여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할 경우 이들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따뜻이 맞이할 것이며 신변안전보장을 비롯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 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8년 7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나. 북적, 「7·13」 한적총재의 대북제의 관련 회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7. 16 (토) 11:00 ~ 11:43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김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귀하의 7월 13일부 전화통지문을 받았읍니다.

나는 귀하가 전화통지문에서 첨예한 대결상태에 있는 현 북남관계와 인도주의 사업을 방해하는 귀측 당국의 비인도적 처사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성급하게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주장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합니다.

귀측이 재개를 주장하는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해 말한다면 이 회담이 중단되게 된 근본요인부터 올바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1984년 9월에 있은 남조선 수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구호조치를 계기로 12년만에 좋은 출발을 하였던 북남적십자회담이 귀측 당국의 반공대결정책과 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도적 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며 회담자체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귀측 당국의 대결소동과 전쟁책동은 오늘도 없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올림픽 안전을 구실로 더욱더 강화되고 있읍니다.

귀측은 응당히 회담의 재개를 말하기에 앞서 회담을 중단시킨 책임을 인정하며 인도적 사업에 난관을 조성하는 귀측 당국의 비인도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와 그로부터 생겨나오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바로 보고 그것을 가시기 위한 노력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이 인도적 사업을 위하여 절실한 일은 하지 않고,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누가 보아도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귀측이 이번에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주장한데 대하여 말한다 하여도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귀측이 실무자들이 협의하게 하자는 제반문제들은 귀측에 의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도 아니며, 이미 70년대와 80년대 중반기에 진행된 북남적십자회담들에서 논의되어 오던 문제들입니다.

귀측이 주장하는 「노부모문제」는 일찌기 귀측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의 기본방도인 우리측의 자유래왕 제안에 대치시켜 문제토의를 회피하고 본 회담 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들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실상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래왕만 실현되면 노부모들의 문제는 상정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부모들을 포함하여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고통을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빠르게 덜어줄 수 있는 자유래왕을 반대하던 귀측이 오늘에 와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인도적 문제해결에 관심이나 있는 것처럼 노부모문제를 다시들고 나온 그 진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귀측이 이번에 제기한 고향방문단 성원들 사이의 서신거래 문제는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없게 하고 있읍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우리는 1985년에 있은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 때 귀측과는 반대로 방문단의 규모를 크게하고 고향방문단 성원들이 혈육들을 가정적 분위기에서 가족단위로 자유롭게 만나며, 이들이 숙소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가족·친척들의 집에가서 하룻밤만이라도 자고오게 하며 가족끼리 시내에 나가 식사도 같이하게 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친척들의 묘소를 찾아 성묘도 하게 할 것을 주장 하였읍니다.

그러나 귀측은 우리측의 이러한 제의를 어느 하나도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혈육들을 만나는 것조차 안전기획부 요원들의 감시밑에 대중집합

장소에서 집체적으로 만나게 하였읍니다.

지어 귀측은 우리측 방문자들이 혈육들을 만나 가족·친척들에게 보내는 문안편지와 사진을 직접 주는 것마저 방해하면서 우리 방문자들이 보는 면전에서 편지와 사진을 빼앗아 가는 무례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읍니다.

어제는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주고받는 편지와 사진까지 중간에서 빼앗던 귀측이 오늘에 와서 무슨 체면으로 그들 사이의 서신교환 업무를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해외로 흩어진 동포들의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귀측의 주장도 타당성이 결여된 공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기록에도 명백히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도 인도적 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들의 불행과 고통을 다같이 덜어줄데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였읍니다.

그러나 귀측은 당치않는 구실을 붙이면서 해외동포들을 인도적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집함으로써 결국 회담의제에 해외동포들의 문제가 명백히 반영될 수 없게 하였읍니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십자단체가 알선하지 않아도 국가적인 상설기구인 교포사업총국과 해외동포원호위원회의 주관하에 벌써 수십년 동안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미주와 구라파,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 살고있는 동포들이 해마다 수만명이나 자유롭게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고 가족·친척들과 상봉하며 편지거래도 하면서 본인들의 희망과 의사에 따라 공화국에 영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읍니다.

해외동포들을 인도적 사업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던 귀측이 해외동포들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는 우리를 걸고 주체성도 없이 제 3

자의 협조까지 운운하며 해외동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귀측이 이번에 북남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 데서 나서는 선결문제인 회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돌릴 대신 명분도 서지 않고 해결할 권능도 없는 실무회의를 제기한 것은 실지에 있어서 적십자 본회담의 의의를 부정하고 그의 재개를 무한정 뒤로 미루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읍니다.

귀측이 돌연히 적절치 못한 시기에 합당치 못한 문제를 전화통지문으로 남발한 것은 진심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선의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당국의 7·7분열선언에 이용되어 가짜 인도주의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통일기운을 무마하며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는데 한 몫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적십자 단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본연의 사명에 어긋나게 당국의 정치적 이용물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북남적십자회담이 재개되어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며 그들 사이에 자유롭게 편지를 교환하고 상봉하며 재결합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북남연석회의가 조속히 소집되어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가로막는 제반요인들이 제거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만일 귀측이 진실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모든 힘을 다하여 북남연석회의를 소집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 원 장 손 성 필

1988 년 7 월 16 일

6. 남북체육회담

가.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11회 북경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체육회담 제의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12. 19 (월) 15:04 ~ 15:09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김동해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 원 장 손 성 필

1988년 12월 19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종 하 귀하

나는 귀하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 입니다.

귀하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1988년 12월 19일

나.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남북체육회담 제의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12. 20 (화) 10 : 02 ~ 10 : 08
- 통 화 자 : (남) 이명수 (북) 김영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12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21일(수)오전10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88년 12월 20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종 하

다.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11회 북경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체육회담 관련 대북서한 전달예고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12. 28(수) 10:07 ~ 10:13
- 통 화 자 : (남) 서동훈 (북) 김영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 원 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12월 2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30

일(금) 오전 10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 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88년 12월 28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종 하

라.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남북체육회담 관련 대북서한 접수동의 전통문

- 통화일시 : 1988. 12. 29 (목) 15:11 ~ 15:14
- 통 화 자 : (남) 윤정원 (북) 김영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 원 장 손 성 필

1988년 12월 29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종 하 귀하

나는 귀하가 보내는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30일(금) 오전 10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1988년 12월 29일

서기 1989 년 2 월 21 일 40 부 발간	
발간업체명	웃 고 문 화 사 267-3956·9795
대 표 자	윤 홍 규
인 가 근 거	내삼 510-41875(81.10.2)
참 여 자	남 북 대 화 사 무 국
	이 명 수